



어느 노총각과 노처녀가 만나 교회에서 다른 부부보다도 더 큰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8년이 넘었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어느 신혼부부 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 부부에게 기다리던 아기가 생겨 온 교회 성도들의 내 일처럼 기뻐하심 속에 아기가 탄생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아기가 정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마취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하고 아내에게 갔더니 아내의 배에는 이미 눈물에 젖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생명을 누구에게 맡겨야 천대받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생각하시다가 그래도 우리 부부는 믿을 수 있다고 여겨져서 마침내 이 아기를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 부부에게서는 이 아기가 천덕꾸러기로 멸시받거나 버림받지 않고 세상 누구에게서 보다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확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믿어 주신 증거가 아닐까요? 처음엔 저도 너무나 속상하고 하나님께 원망스러웠는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릴 믿어 주신 증거가 여기 우리 아기로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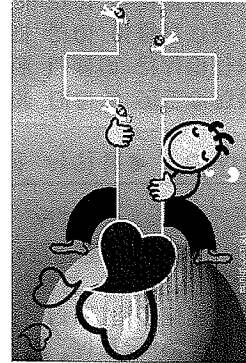
아내는 무슨 말로 자기를 위로해야 할지 몰라 눈물만 흘리며 침대 곁에서 있던 남편의 손을 잡고 글썽거리는 눈물로 웃으며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땐 그랬지▶ 영화 “바보들의 행진”
철학과 학생 병태와 영철이의 군입대를 위한 신체 검사중 엉덩이를 내리는 장면의 포스터가 코믹하면서도 충격적이었던 영화 ‘바보들의 행진’. 가수 송창식씨의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삼등 삼등 완행 열차....’ 라는 “고래사냥”이란 주제가는 아직도 운동경기장에서 불리워 지고있을 만큼 젊은이의 절규를 뭉뚱그려 담고 있었습니다.
탈출구가 막힌 숨 막히는 시대를 살던 젊은이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었던 70년대의 영화, 젊음이 주어진다면 다시 그 시절의 암울한 상황도 몸으로 겪어보고 살고 싶습니다

| | | |
|--|---|--|
|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
| 제6권 10 호 |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 2004년 3월 7일 |
| ☎520-9464, 369-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ca.to | | |

오드리 햅번의 유언
(딸에게 남긴 그녀의 마지막 유언)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할 말을 하라
사랑스런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네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너 자신이 혼자 걸고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 부터 복구되어져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 져야하고
병으로 부터 회복되어야하고
무지함으로 부터 교화 되어야 하며
고통으로 부터 구원 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된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것이다.
한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사람을 돕는 손이다

◀남편 기 살리는 말▶
“보약 한 재 지어 두었어요”
◀기 죽이는 말(절대 해선 안될 말)▶
“당신은 알 필요 없어요”

◀아내 기 살리는 말▶
“당신은 뭘 입어도 품이 나”
◀기 죽이는 말(절대 해선 안될 말)▶
“포기한 지 오래됐어 ”

(* 표에 영어사기 어려운 문은 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 일 예배

영광 찬양 Gloria Calvary

회화의 기도 Confession Pray

영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찬양

58장

*영시

39 (이사야 55)

*신앙고백

사도신경

Welcome & Announcements

아린이 시간

Sunday School

찬양

135장

기도

김순자 목사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3:7-13

성가대 찬양

나무심자가가대

Sermon

작은 능력 큰 믿음 빌라델비아교회

김성국 목사

회개기도

Offering Pray

찬양

이 믿음 더욱 큰 세라 (찬양다량)

Response Song

찬양

김성국 목사

Benediction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를 갖습니다) ◆2,3월의 예배위원

| | | | |
|----|-----|-----|-----|
| 7 | 김순자 | 박성웅 | 5구역 |
| 14 | 김영린 | 박신 | 6구역 |
| 21 | 김종건 | 박재양 | 청년부 |
| 28 | 노은숙 | 박정자 | 7구역 |

다량 이

인도자

다량 이

다량 이

주일학교

다량 이

인도자

김성국 목사

인도자

다량 이

김성국 목사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참음대로 참면 손해본다. 그래도 삽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붙인다

*3주간 예배, 전교참석 이후에
특별 자력이 주어집니다
*여과회를 다녀 보신후 경험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1. 교우소식

<이사> 김순화 전사 ☎ (09)428-2440 ☒ 7 Trinaran Dr. Gulf Harbour, Whangapararaa
<한국방문 후 귀국> 조영자 전사. 큰 이사하신 일만 남았는데 여행 피로와 견치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히요
<김영구 전사> 사업준비를 위해 한국방문중. 한달후에 Open하는 사업(식당)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 "부활절 동안 영어상경 쓰기" : 필사용지가 안내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음기독과 함께 보내는 사순절, 생애에 의미있는 한 점이 될 것입니다
3. 이번주는 정기 구역예배주간입니다: 매일 첫주 금요일 <일시> 12월 저녁 7:30
*한 팀에 한번 모여 구역소구를 위한 기도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4. 필사자 필사용사 <일시> 13일(토) 10am-1:30pm <담당> 필사자립식 자원봉사자
5. 수해당한 KIW이를 위한 수재헌금

*KIWI 산조들이 머물려 이월 좋은 좋은 환경과 복지에 우리는 아무런 일조없이
이름으로 그저 누리고 있는것만 같아 미안했는데 이번 누질랜드의 수재에 작게
나마 그 고마움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안내처
에 수재헌금함을 마련합니다.
<대상> Wherico Church (Wellington) 근처를 흐르는 강이 넘쳐 마를
전체가 물에 잠김)
*우리의 뜻과 함께 수재헌금 지원대상을 본교회 Lemuel 목사님께서 부탁드렸더니
Holy Sepulchre 교회에서도 \$1,000를 모아 우리와 같이 보내드리겠다 하셨습니다
다. 사랑은 이렇게 전염성이 강합니다
6. 아동부 그림그리기: <일시> 다음주일(14일) 11시
7. "3월의 금요새벽기도": 교우의 사랑을 위한 기도회 <금요일 새벽 6시 교회>
*교우들의 어려운 사연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힘이 되고 응답을 이루어 주실
시오.

▶좌한 시인들▶ 만지의 의미

절호수

만남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만남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다
처음과 같이 아를담자는 것이다
처음과 같이 수결하는 것이다
언제나 첫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언제나 첫마음을 잃지 말자는 것이다
사람에도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꽃이 진다고 불지 말자는 것이다
스스로 꽃이 되자는 것이다
처음과 같이 기다려지는 것이다
처음과 같이 영원하자는 것이다

지난 주, 젊은이들의 결혼식에서 신
랑신부의 반지를 든 제 마음이 긴장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증표, 반
지처럼 동글게 감춰안으며 살라, 이
어진 매듭없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댈
하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학교 졸업반지를 결혼 예복
로 받았기에 더욱 소중한 여기에 두었
는지 늘 편손가락이 되어 있습니다.
형아버린 반지지만 형아버린 마음은
안되어야겠기에 더욱 조심스레 마음
단도리합니다.